

정병석 전남대 신임 총장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재 키울 것”

정병석(59·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신임 총장의 말은 차분하면서도 힘이 느껴졌다. 지난 1986년부터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지켜봤던 학교라는 점에서 4년간 대학을 이끌어갈 그림을 그려놓은 듯 막힘없이 풀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학이라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남대”=“지방 명문대”라는 말이 흐릿해졌다. 전남대 현재 상황을 진단해달라.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자랑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면서 대학 힘도 떨어졌다. ‘인’(IN) 서울’ 만을 고집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 ‘Pride & Hope’를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 전남대는 1952년 개교한 이래, 65년 동안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왔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



교육기부 및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대학의 역할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 국립대가 지역민들과 호흡하기 위한 것인가.

▲ 그렇다. 지금껏 진행해왔던 도심 뒷밭, 한채 일기 등의 정책 뿐 아니라 문화전문대학원을 통해 문화중심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가 시민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자유, 평화, 민주, 인권을 지켜온 전통을 차별화된 가치로 발전시키는 전남대만의 ‘브랜딩’을 추구해 나갈 테다.

- 대학 발전기금 700억을 약속했는데.

▲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에게 바라는 가장 큰 요구 아닐까 싶다. 지역민을 비롯한 여러 기업, 독지가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내부 조직도 보완해 대학이 건실한 재정 상황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화·민주·인권 전통 차별화로 전남대만의 ‘브랜딩’ 추구할 것

지역발전 기초동력될 활동 펼쳐 지역민 사랑받는 대학 만들겠다

- 신임 총장으로서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3D프린팅, 가상현실 등 초고도화된 과학기술이 이끌고 있다.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소’ 역할을 전남대가 해야 한다.

- 수험생들, 전남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한 말씀.

▲역사는 우리의 자랑이다. 전남대가 지켜온 자유, 평화, 민주, 인권의 가치는 캠퍼스 곳곳에 남긴다. 그런 가치가 가득한 대학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싶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병석 총장 서울대에서 법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86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 로스쿨에서 두 차례 방문 학자를 지냈고 전남대 법과대학장, 융합인재교육원장, 기획연구실 부실장, 로스쿨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연구·경쟁력 있는 분야 특화시켜 ‘글로벌 리서치 허브’로 육성

교육·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기여 문화중심도시 맞는 역할 찾을 것

유와 평화, 인권, 민주를 지키기 위해 펼쳐온 활동은 자부심(Pride) 넘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대학의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의 희망(Hope)을 키워 나가자는 뜻을 담았다.

- 슬로건으로 전남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상이 엮 보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방이 서울로 통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세계로 바로 통하는 시대로 열릴 수 있다. 미리 기회를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맞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교양에 탄탄한 전공 실력을 갖추고 사회 어느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소통 능력, 글로벌 사회에 대응할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들, 키워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전남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늘로 불러들이는 커다란 트리트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긴 호흡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멀리 바라보며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 대학 구조조정 시대다. 전남대도 2년 간 신입생이 432명 줄었다.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전남대의 생존 전략은 어디에 있나.

▲ 대학 스스로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연구 분야를 비롯, 경쟁력 있는 분야를 특화해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 전남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과 연구원이 모여드는 ‘글로벌 리서치 허브’로 키워내겠다. 연구자들에게 친근한 캠퍼스를 구축할 테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이 대학 곳곳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 실험실 구축 지원금을 늘리고 대학본부 연구보조원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해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에 보태겠다. 연구 인프라를 활용,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도 늘리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 지난해 전남대의 기술이전 수입액은 거점 국립대 중 1위였다.

- ‘지역에서 사랑받는 명문대 만들기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 계획인가.

▲ 인재 양성은 지역 대학의 기본적 역할이다. 이외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전남대가 지역 발전의 기초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남 관광지 170곳 무료 와이파이 이용한다

담양 소쇄원·여수 향일암 등 포함 아영·캠핑장, 도시공원서도 가능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170곳에서 무료로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KT와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협약을 하기로 하고 설치 물량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잠정적으로 22개 모든 시·군 111개 관광지, 18개 아영·캠핑장, 41개 도시공원 등 170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 소쇄원, 여수 향일암, 섬진강 기차마을, 목포 유달산 등 주요 관광지와 휴양

림 등이 포함됐다.

와이파이 존에서는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는 이미 와이파이망을 갖춘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유명 관광지에서 이용료 부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올해 56~57곳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안테나, 안내면 등 시설 설치에는 29억 88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시·군이 25%씩, KT가 50%를 부담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해 섬지역까지 맞춤형복지팀 확대

236곳으로 늘려 복지사각 해소 2018년 모든 읍·면·동에 설치

전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에 설치한 맞춤형복지팀을 지난해 70곳에서 올해 섬지역을 포함해 236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18년까지 297개 모든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일 “완도·정산·보길면, 신안·장산·하의면, 진도 조도면 등 복지 대상과 유인도서가 많아 복지 환경이 열악한 섬지역 18개 읍면에도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 섬지역이 육지의 복지 여건과 달리 복지 수요가 분산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 복지 대상과 유인도서 수를 고려한 ‘섬지역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표준 모델’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에 복지 경험이 많은 팀장과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해 기존 복지팀 업무와 별개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사례 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을 담당한다.

올해 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에는 방문용 복지차량 100대를 보급한다. 또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직접 지원하도록 사례 관리비를 지난해보다 40% 인상해 84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문수동, 영암 삼호읍 등 15개 시·군 7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1만7000가구를 직접 찾았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주변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담해야”

송기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갑)은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을 강제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개발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당초 학교용지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됐지만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6개 법률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

